

RICHARD YONGJAE O'NEILL <DUO>

리처드 용재 오닐

DUO

CREDIA

BEETHOVEN-BENJAMIN-MOZART-J.S.BACH-SCHUBERT

CREDIA
MUSIC & ARTISTS



www.jestina.co.kr

CREDIA
MUSIC & ARTISTS

RICHARD YONGJAE O'NEILL <DUO> 리처드 용재 오닐

2018.3.31^{SAT} 8PM 롯데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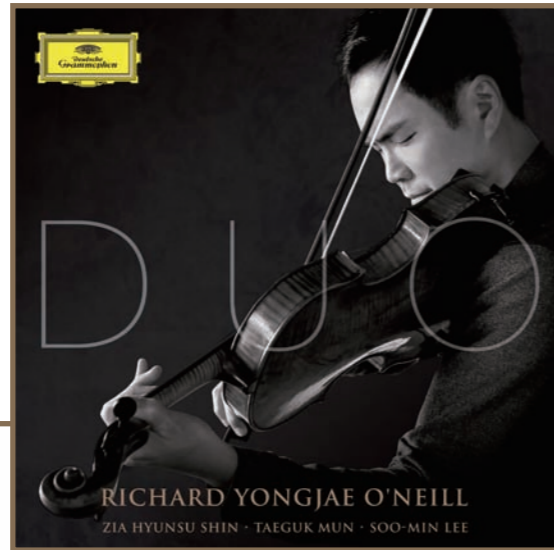
CREDIA

**JESTINA**

후원 **KOREAN AIR**

**UNIVERSAL**
UNIVERSAL MUSIC GROUP
INTERNATIONAL

아름다운 비올라 선율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9집 음반을 발매한다. 이번 음반의 테마는 'DUO'로, 음반 발매와 더불어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김해, 대구, 안동, 인천, 서울에서 기념 투어 연주도 있을 예정이다.

“몇 년 전에 저는 비올라의 솔로에 집중한 <SOLO>라는 앨범을 녹음 했죠. 이번 앨범에서는 바이올린과 비올라, 비올라와 비올라 그리고 비올라와 첼로, 이렇게 비올라와 다른 현악기의 듀오 곡들을 보여드립니다. 흔히 접하기 어려운 벤자민, 힌데미트, 호프 마이스터 곡들부터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조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앨범은 2012년 발매된 <SOLO>에 대비되는 5년 만의 신작이다. 전작이 용재 오닐의 독백 모음이었다면,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주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앙상블 디토와 디토 페스티벌 10주년을 맞이했고, 에네스 콰르텟과 베토벤 전곡 투어도 했습니다. 5년 전 경험해 온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또 어려운 음악 프로젝트들을 해왔는데, 이 프로젝트들과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경험들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음악을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연주자로서의 제 바람을 더 깊고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앨범에서도 그런 부분이 실현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왠지 모를 아련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번 공연의 포스터에는 ‘당신을 기다리며’라는 문구와 함께, 빈 옆자리에 시선이 고정된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용재 오닐의 모습이 담겨있다. 과연 <DUO> 앨범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음악은 작곡가들이 아티스트와 관객들에게 보내는 친밀한 대화의 초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음악을 연주하고, 들음으로써 그에 반응하는 거죠. 오는 리사이틀 공연에서 관객분들이 이 초대에 같이 반응하고 즐기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같이 연주하는 문태국 씨는 앙상블 디토에서 함께 연주해 온, 젊지만 실력이 출중한 첼리스트이고, 이수민 씨는 저와 현대곡을 함께 공유하는 실력 있는 비올리스트이며,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씨는 화려한 기교를 보여줄 색깔 있는 연주자예요. 각각 굉장히 다른 개성과 음악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컬래버레이션이 관객 분들께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리사이틀의 1부에서는 비올라를 중심으로 한 듀오 레퍼토리들이, 2부에서는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주곡 무대가 이어진다.

“특히 조지 벤자민의 <비올라, 비올라>가 많은 분들께 놀라움을 안겨 드릴 겁니다. 정말 많은 색과, 기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에요. 관객분들이 이번에 연주될 듀오 레퍼토리 중에서 가장 감탄하실만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비올리스트로서는 최초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은 용재 오닐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학사를, 줄리아드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그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뉴욕시의회로부터 명예로운 시민상을 받았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UCLA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번 공연과 관련해서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했기에 더 깊은 드라마가 가능했다.”라고 소개한 용재 오닐,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한다고 말한다.

“상대방과 함께 각자의 가치관과 관점을 바탕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서로 고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배우는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음악으로 표현되는 거죠. 저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간혹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꺼려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용재 오닐은 에버리 피셔 그랜트 상을 수상하며 그래미 상 후보로 지명된 바 있고, 유니버설 뮤직 아티스트로서 현재까지 화려한 디스코그래피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MBC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 JTBC '말하는 대로' 등 각종 매체에서 주목받았으며, 그가 출연한 다큐멘터리 '엄마를 위한 노래'가 공중파 방영 예정으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녕?!오케스트라'에 함께 출연했던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이제 모두들 청소년 또는 청년이 되었어요. '엄마를 위한 노래'는 '안녕?!오케스트라'에 나왔던 일부 아이들의 엄마, 저와 함께 그들의 고향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떠난 여행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이번 공연 후, 용재 오닐은 두 번의 세계 초연을 앞두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선보일 레라 아우어바흐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24개의 서곡>과 링컨센터 챔버뮤직소사이어티를 위해 쓰인 휴 왓킨스의 <피아노 5중주>는 런던 위그모어홀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디토 페스티벌도 오는 6월에 계획되어 있다. 특별히 이번 페스티벌은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지며, 첼로계의 거장 미샤 마이스키를 포함한 여러 연주자들과 다이내믹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음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용재 오닐이다. 이번 음반과 리사이틀은 모두 관객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듯 하다. 비올라 선율이 주는 감동을 앨범은 물론 공연 현장에서 함께 경험해보길 바란다.

<스트링앤보우> 2월호, 글 | 김소연 기자



CREEDIA

PROGRAM

베토벤
L.V.Beethoven

첼로와 비올라를 위한 듀오, 아이글래스
Eyeglasses, Duo for Viola and Cello WoO 32
리처드 용재 오닐^{Viola}, 문태국^{Cello}

조지 벤자민
George Benjamin

비올라, 비올라
Viola, Viola
리처드 용재 오닐^{Viola}, 이수민^{Viola}

모차르트
W.A.Mozart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K.424
Duo for Violin and Viola, K.424
아다지오 알레그로 Adagio-Allegro
안단테 칸타빌레 Andante cantabile
테마 콘 바리아조니 Tema con variazioni
리처드 용재 오닐^{Viola}, 신지아^{Violin}

Intermission

J. S. 바흐
J. S. Bach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randenburg Concerto No. 6 in B flat major, BWV 1051
알레그로 Allegro
아다지오 마 논 탄토 Adagio ma non tanto
알레그로 Allegro
리처드 용재 오닐^{Viola}, 이수민^{Viola}, 문태국^{Cello},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슈베르트
F.P.Schubert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rpeggione Sonata
알레그로 모데라토 Allegro moderato
아다지오 Adagio
알레그레토 Allegretto
리처드 용재 오닐^{Viola},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공연 중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진, 영상, 녹음 기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Unauthorized cameras and recording devices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베토벤 첼로와 비올라를 위한 듀오, 아이글래스

Beethoven Eyeglasses, Duo for Viola and Cello WoO 32

1796년에 작곡된 이 곡은 “두 개의 안경을 위한 이중주곡”(Duet mit zwei obligaten Augengläsern)이라 불리기도 한다. 베토벤이 그의 오랜 친구이자 아마추어 첼리스트인 니콜라우스 츠메스칼 남작과 초견으로 악보를 읽으며 즐겁게 연주하기 위한 곡이기 때문이다. 소년 시절에 고향인 본의 궁정에서 비올라를 연주했던 베토벤은 훌륭한 비올리스트이기도 했으므로 츠메스칼과 함께 연주하기 위해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2중주라는 독특한 편성의 작품을 만들게 된 것이다. 초견 연주를 위해 작곡된 곡이라고는 하나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베토벤의 2중주 WoO 32의 악보를 처음 보고 완벽하게 연주하려면 연주 기술이 매우 뛰어나야할 것 같다.

이 곡은 소나타형식으로 된 빠른 템포의 1악장과 미뉴에트의 2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2악장 미뉴에트가 확실히 이 곡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1948년에 발견된 미뉴에트 악장의 악보를 보면 악기편성은 물론이고 악상이 매우 비슷할 뿐 아니라 잉크, 종이 등으로 보아 WoO 32의 1악장과 유사하지만 작곡된 지역은 1악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공연에선 1악장만 연주하며, 음반에선 관례대로 미뉴에트 악장을 2악장으로 연주한다.

벤자민 비올라, 비올라

George Benjamin Viola, Viola

1960년 영국 태생의 조지 벤자민은 작곡가이자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다. 영국에서 공부한 후 파리음악원으로 유학해 대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을 사사한 벤자민은, 메시앙이 가장 좋아하는 제자로 꼽을 만큼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벤자민의 ‘비올라, 비올라’는 이 시대 최고의 비올리스트로 꼽히는 유리 바쉬메트와 노부터 이마이에게서 영감을 받은 비올라 2중주곡으로, 오페라 시티 홀 문화재단의 위촉으로 작곡된 후 1997년 9월 16일에 도쿄 오페라 시티 홀 개관공연에서 초연되었다. 당시 벤자민은 프로그램 노트를 통해 “나는 이처럼 전통적이지 않은 악기편성을 통해 작곡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처음에 고민했다”고 밝히면서 “비올라의 우울한 소리의 역할, 그림자와 같은 소리의 특성을 살려보려 했으나 그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열정적이고 정력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고 썼다. 그는 “나의 바람은 거의 오케스트라의 깊이와 다양성을 지닌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라 말했는데, 실제로 이 곡을 들어보면 비올라 2중주곡이라기보다는 현악 오케스트라 곡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채로운 음향으로 가득하다.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K.424

Mozart Duo for Violin and Viola, K.424

모차르트가 단지 2대의 악기만을 위해 작곡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더구나 건반악기도 없이 선율악기만으로 2중주곡을 쓴다는 건 더더욱 드물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독특한 2중주곡을 2곡(K.423과 K.424)이나 썼을까? 이는 한 음악가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다.

1783년에 고향 잘츠부르크를 방문한 모차르트는 미하일 하이든(Johann Michael Haydn, 1737-1806)을 위해 2곡의 이중주곡을 썼다. 미하일 하이든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요제프 하이든의 동생으로, 잘츠부르크 대주교의 음악감독이자 악장으로 활동했다.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를 방문했을 당시 하이든은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2중주 4곡을 썼고 모차르트는 여기에 2곡을 더하여 총 6곡이 하나의 세트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6곡의 2중주곡은 두 음악가의 우정의 산물인 셈이다. 모차르트는 이미 작곡되어 있던 미하일 하이든의 2중주곡 4곡의 조(C, D, E, F)와 겹치지 않도록, 그의 2중주곡을 G장조와 B플랫 장조로 작곡했는데, 그 중 이 음반에 수록된 B플랫 장조(K.424)가 더욱 자주 연주된다.

다른 작곡가의 스타일을 곧잘 흉내 냈던 모차르트는 이 곡에서 미하일 하이든의 양식을 차용해 흥미롭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는 미하일 하이든이 좋아했던 장식음을 많이 쓴다든가. 느린 서주를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올린을 주된 악기로 사용한 하이든의 작품에 비해 모차르트의 2중주곡에선 비올라의 비중이 크고 음악적인 표현도 한결 풍부하다. 1악장 아다지오 서주에 나타난 모차르트의 반음계주의는 미하일 하이든의 영향으로 보이지만 이어지는 알레그로 섹션은 모차르트답다. 2악장에 드러난 호소력 있는 표정 역시 모차르트 음악 특유의 감성을 보여주며 변주 형식의 3악장에선 비올라 파트의 화려함이 돋보인다.

George Benjamin

비올라의 우울한 소리의 역할,
그림자와 같은 소리의 특성을 살려보려 했으나
그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열정적이고 정력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

PROGRAM NOTE

J.S.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J. S. Bach Brandenburg Concerto No. 6 in B flat major, BWV 1051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작곡가 바흐가 1721년에 브란덴부르크 공 크리스티안 루트비히에게 헌정한 작품이다. 당시 바흐는 쾨텐 공의 궁정 악단을 위해 작곡해두었던 6곡의 협주곡을 정리해 브란덴부르크의 루트비히 공에게 헌정했는데, 그때 루트비히 공은 바흐의 협주곡들을 몹시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 궁정악단의 멤버들만으로는 바흐의 협주곡을 연주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각기 다채로운 개성을 지닌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곡을 모두 연주하려면 매우 다양한 악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악기편성의 독창성과 음향의 다양성에 있어 독보적인 작품이며 바로크 시대의 협주곡 가운데서도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평가된다.

대개 ‘협주곡’이라 불리는 음악은 독주 악기 하나와 대 편성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는 곡을 뜻하지만, 바흐가 활동하던 바로크 시대의 협주곡 중에는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독주 악기가 여러 대인 경우가 많고 오케스트라의 규모도 현악 위주로 그리 크지 않았다. 오늘 연주되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6번에서도 독주 악기로 비올라 2대가 활약하며 오케스트라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곡에는 현악 앙상블에서 결코 빠지는 법이 없는 바이올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고 편안한 중저음 앙상블의 매력이 돋보인다. 오케스트라 그룹도 다른 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결하여 옛 현악기 비올라 다감바와 첼로 그리고 쳄발로 등으로 구성된다.

1악장은 두 대의 비올라가 서로의 선율을 모방해가며 진행되는 빠른 템포의 곡으로, 오케스트라와 독주 악기들의 선율이 정교하게 얽혀들며 조화를 이룬다. 2악장은 두 대의 비올라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듯 느린 템포로 연주되고 단조 음악 특유의 우울함이 비올라의 어두운 음색으로 잘 표현된다. 빠른 3악장에서 다시 명랑한 분위기로 바뀌고 경쾌한 발걸음과 같은 주제가 반복되며 바로크 음악의 특유의 활기를 전해준다.

PROGRAM NOTE

이 악기는 아름답고 웅만하며 달콤한 톤을 지녔는데, 고음역은 오보에 소리를 닮았고, 저음역은 바셋 호른 소리와 비슷하다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Dobrinka Tabakova 편곡)

Schubert Arpeggione Sonata (Arr. Dobrinka Tabakova)

슈베르트가 아르페지오네를 위한 소나타를 작곡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토록 독특한 악기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르페지오네는 ‘사랑의 기타’(Guitare d’amour)라고도 불리며 첼로와 기타가 합쳐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타처럼 지판에 프렛이 있고 여섯 줄로 되어있지만 활로 연주하는 것은 첼로와 비슷하다.

아르페지오네를 만든 빈의 악기제조업자 슈타우퍼는 특히 기타 제작에 있어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다. 그가 아르페지오네를 만든 것은 대략 1823-4년경의 일로, 당시 빈의 일반음악신문은 이 새로운 악기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이 악기는 아름답고 웅만하며 달콤한 톤을 지녔는데, 고음역은 오보에 소리를 닮았고, 저음역은 바셋 호른 소리와 비슷하다. 특히 반음계와 이중음을 연주하기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런 호평에도 불구하고 아르페지오네는 발명되자마자 곧바로 잊혀졌다. 음악가들은 이 악기의 연주법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작곡가들 역시 이 악기를 무시했다. 그러나 슈베르트만은 아르페지오네에 주목하여 1824년 11월에 이 악기를 위해 소나타를 작곡했는데, 아마도 그는 아르페지오네를 위한 곡을 작곡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상적인 주제로 시작하는 1악장은 가곡 작곡가 슈베르트 특유의 노래하는 알레그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반면 2악장 아다지오는 아주 부드럽게 시작되지만 갈수록 화성이 불안해지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슈베르트 후기 실내악곡의 전형을 보여준다. 3악장 론도에 이르러서야 밝고 확신에 찬 음악이 흐른다. 피날레답게 매우 기교적이며 헝가리 풍의 양식을 보여준다.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슈베르트의 죽음 이후 한동안 잊혀져갔다. 1867년 영국의 음악학자 조지 그로버 경이 독일음악협회 도서관에서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의 악보를 찾아내 출판하지 않았다면 이 뛰어난 명곡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 당시 그로버 경은 출판 당시 아르페지오네라는 악기를 찾을 수 없어 이 곡을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위한 작품으로 바꾸어 출판했다. 이후에도 이 소나타는 다양한 악기들을 위한 여러 가지 판본으로 출판되었지만 첼로 연주가 가장 보편적이다. 그러나 비올라 편곡 역시 부드럽고 친근한 매력이 있어 자주 연주되고 있다. 오늘날은 도브린카 타바코바가 비올라와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한 버전이 연주된다.

글 | 최은규 (음악 칼럼니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Richard Yongjae O'Neill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두 차례 그래미상 후보로 지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미상과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받으며 연주자로서 사회적, 음악적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며 젊은 연주자 사이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런던 필(블라디미르 유롭스키 지휘), LA 필(미구엘 하스 베도야 지휘), 서울시향(프랑수아 자비에르 로스 지휘), KBS교향악단,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 알테 무지크 쾰른, 세종솔로이스츠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뿐만 아니라 독주자로서 뉴욕 카네기 홀, 에버리 피셔 홀, 케네디 센터와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샬 코르토, 도쿄 오페라시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활발한 독주무대를 펼쳐오고 있다.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많은 초청을 받는 용재 오닐은 2008년부터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정식단원으로, 2006년부터 카메라타 퍼시피카의 상주 비올리스트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04년부터 2년간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유일한 비올리스트였고, 세종솔로이스츠에서는 6년간 비올라 수석과 독주자였다. 또한, 에마누엘 엑스, 레온 피셔, 개릭 울슨, 메너헴 프레슬러, 스티븐 이설리스, 에머슨 현악 사중주단, 줄리아드 현악 사중주단, 앙상블 빈-베를린 등 세계 최고의 음악가와 연주해 왔다. 말보로, 아스펜, 브리지햄튼, 브루클린, 카잘스, 체임버 뮤직 노스웨스트, 대관령, 라 호야, 일본 열광의 날, 모스틀리 모차르트, 통영 등 다수의 국제 음악제에도 참여해 왔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유니버설/도이치 그라모폰 아티스트로서 2017년까지 9장의 솔로 앨범을 발매, 총 200,000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 <눈물>(유니버설 뮤직 코리아) 와 <겨울여행>(DG) 는 더블 플래티넘을, <미스터리오소>(ARCHIV), <노래>(DG)는 플래티넘을 받았다. 특히 2집 <눈물>은 2006년 클래식과 인터내셔널 팝 두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특별히 유명하기도 한 용재 오닐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참여한 MBC <안녕! 오케스트라>와 같은 다큐멘터리에 수차례 출연했고, TV, 라디오, 일간지 등 주요 미디어가 그의 이야기와 음악 활동을 다루고 있다. 또한, 그가 이끄는 앙상블 디토와 디토 페스티벌은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클래식 프로젝트로 자리 잡아 엄청난 숫자의 관객에게 클래식을 소개했다. 용재 오닐은 상업광고 모델뿐만 아니라 2010-12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한국 방문의 해 미소 홍보대사, 유니세프 아우인형 홍보대사,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유니세프 자선음악회에도 출연하였다. 최근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함께 2018년 평창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홍보대사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에세이 <공감>(2009, 중앙북스)과 <나와 당신의 베토벤>(2016, 오픈하우스)을 발간했으며, 열정적인 마라토너로서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대회에 참가, 완주하는 등 한국에서 가히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음악에 관한 관심도 지대한 그는 세계적으로 큰 집중을 받고 있는 엘리엇 카터, 폴 치하라, 마리오 다비도브스키, 올리버 크누센, 조 콘도, 피터 리버슨, 테아 머스그레이브, 후앙 루오, 데이비드 델 트레디치, 멜린다 와그너, 찰스 우리넨, 존 존 등의 현대 작곡가와 작업해왔다. 2011년에는 뉴욕 92nd Street Y 극장에서 열린 엘리엇 카터의 103번째 생일을 위한 공연에서 카터가 리처드 용재 오닐과 프레드 쉐리(첼로), 루프 스테(바이올린)을 위해 쓰고 헌정한 현악 삼중주를 세계 초연하였다. 2012년 9월에는 LA에서 후앙 루오의 비올라 협주곡 <In Other Words>을 초연했다. 유니버설 뮤직/DG 음반 외에도 낙소스, 브리지 등의 레이블에서 그의 연주가 발매되고 있으며 뉴욕타임스는 쇤베르크와 베베른이 수록된 낙소스 앨범 리뷰에서 용재의 연주에 관해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연주라고 묘사하였다.

ARTISTS

CREDIA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비올리스트 최초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은 용재 오닐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학사(마그나 쿼 라우데)를, 줄리아드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 폴 뉴바우어와 도날드 맥아인스를 사사하였다. 뉴욕에 거주하면서 예술에 대한 그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뉴욕시 의회로부터 명예로운 시민상을 받았으며, 교육자로도 헌신하여 2007년부터 UCLA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번 시즌에는 작곡가 레라 아우어바흐가 그를 위해 쓴 비올라 피아노 듀오를 위한 24개의 서곡 세계 초연과, 알바니 심포니와의 크리스토퍼 테오파티디스 비올라 협주곡 편곡 버전 초연, MUSCO 공연장의 오프닝 공연, 시마노프스키 사중주와 모차르트 비올라 오중주 전곡 연주, 런던 위그모어 홀에서 펼치는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휴 왓킨스 피아노 오중주 초연, 예술감독으로써의 열한 번째 앙상블 디토 연주,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 실내악 음악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현재 1727년 마테오 고프릴레르가 제작한 베니스 산 ‘ex-Trampler’와 가스파로 다 살로 ‘ex-Iglitzin, the Countess of Flanders’을 사용하고 있다.





1집 <리처드 용재 오닐 Richard Yongjae O'Neill>

"용기와 재능이 만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유니버설 뮤직 데뷔 음반 클라크의 '비올라 소나타', 프래의 '넬, 오람, 꿈꾼 후에', 리스트의 '오 내가 잠들었을 때',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 3번' 등 수록



2집 <눈물(라크리메) Lachrymae>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눈물"

용재 오닐 최고의 베스트셀러! 2006년 클래식과 인터내셔널 팝 두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 대중에게 용재 오닐을 각인시킨 앨범이다. 소르의 '라 로마네스카', 브루크필러 '아상곡', '섬집아가' 등 클래식뿐만 아니라 비올리스트로서도 유례없는 기록을 남겼다.



3집 <겨울여행 Winter Journey>

"얼어붙은 눈물 위로 흐르는 뜨거운 사랑의 시"

세계 최고의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에 발매되었다. 비올라가 노래하는 전설적인 사랑과 죽음의 노래,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와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비올라의 깊은 소리와 클래식 기타의 영롱하고 정교한 소리로 재탄생시켰다.



4집 <미스테리오 Mysterioso>

"바로크 음악이 당신에게 마법을 걸다."

거트현과 바로크 활로 들려주는 정통 고음악의 신비! 세계적인 고음악 단체 알데 무지크 필름과 함께 한국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세계적인 고음악 레이블인 아르히프(Archiv)로 발매한 음반이다. 텔레만 '비올라 협주곡', 비탈리의 '샤콘느', 헨델/할보르센 '파사칼리아', 비버의 '파사칼리아' 등 수록



5집 <슬픈 노래- Nore>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피아노와의 담백한 호흡, 용재 오닐의 비올라가 부르는 진짜 '노래!'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멘델스존 '무언가', 빌라-로보스 '브라질 풍의 바흐' 등 성악을 위해 쓰인 곡들을 마음을 어루만지는 용재의 비올라로 연주



6집 <기도 Pregariera>

"그가 건네는 영혼의 위안"

음악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쓸쓸함을 위로해주는 용재 오닐. 마스네의 '타임스 명상곡', 카치니 '아베마리아' 등 널리 알려진 곡들부터 블로흐, 두란테 등 숨겨진 명곡 수록, 독일 명문 실내악단 뷔르템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참여



7집 <솔로 SOLO>

"비올라 하나로 정면승부"

용재 오닐의 첫 전곡 무반주 솔로앨범, 비올라 독주로 음악의 깊이, 테크닉, 그리고 폭넓은 감성을 표출한다.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 2번', 비외탕 '비올라 독주를 위한 카프리치오'부터 힌데미트, 막스 레거 등 수록



베스트 앨범 <마이 웨이 My Way>

우리 시대 가장 인간미 넘치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솔로 데뷔 이후 그의 음악 인생을 담은 베스트 앨범



<로맨티스트 The Romantist>

"용재 오닐이 연주하는 유키 구라모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두 명의 아티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유키 구라모토가 기특한 스페셜 앨범. 유키 구라모토가 용재 오닐의 비올라 음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본인의 작품 10곡을 선곡, 재편곡과 레코딩까지 함께했다. 스페셜 트랙 '아리랑'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겨울여행 Winter Journey> 리패키지

"얼어붙은 눈물 위로 흐르는 뜨거운 사랑의 시"

3집 겨울여행의 리패키지 앨범. 전작 레퍼토리에 덧붙여 슈베르트의 유명 가곡 소품인 '마왕', '송어' 등을 비올라 & 피아노 듀오로 추가했다.



<브리티쉬 비올라 British Viola>

"20세기 영국 비올라 레퍼토리 정수를 담다"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주곡을 포함, 프랭크 브리지(Frank Bridge), 요크 보웬(York Bowen),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 등 기존에 듣기 어려웠던 다양한 영국 작곡가들의 음악들이 수록되어 영국 음악의 정취를 깊게 느낄 수 있다.

DISCOGRAPHY



현과 현의 깊은 대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이수민 참여

리처드 용재오닐

9 번째 정규 스튜디오 앨범

DUO



이번 앨범에는 할보르센 '파사칼리아'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 2중주
베토벤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2중주곡

영국의 작곡가 프랭크 브리지의 두 대의 비올라를 위한 '애가'
조지 벤자민의 비올라 등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다양한 작곡가와 그들의 2중주 곡들이 담겼다.



신지아
Zia Hyunsu Shi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는 보다 깊어진 연주로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 당당히 자리 잡았다.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과 함께 연주자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2015년부터는 KBS 1TV <더 콘서트>의 MC로 활동하면서 연주자로서 드문 활약을 펼쳤다.

신지아는 전주예고 1학년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로 조기 입학, 2004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3위(1위 없음), 2005 티보 바가 국제 콩쿠르 3위와 시벨리우스 국제콩쿠르 3위, 2006 하노버 국제 콩쿠르 2위, 2007 차이콥스키 콩쿠르 5위, 그리고 롱-티보 콩쿠르 4관왕까지 놀라운 속도로 국제 콩쿠르를 섭렵했다.

워싱턴 내셔널 오케스트라, 오사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과 협연 중인 신지아는 2010 광주우 아시안 게임,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여,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인의 위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벅부 아르헤리치 페스티벌, 코펜하겐 뮤직 페스티벌, 대관령국제음악제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세계 각지의 포크송을 모아 편곡한 <칸토 안티고>(유니버설 뮤직),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을 중심으로 한 <신지아 in Live> 음반을 출시했다.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향, 미샤 마이스키와 함께 베토벤 삼중 협주곡을 연주했으며, 2018년 4월에는 피아니스트 아키라 에구치와 함께 예술의전당 리사이틀이 예정되어 있다.

4세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였으며, 10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에 입학, 이어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김남윤 교수를 사사했다. 닛폰 뮤직 파운데이션(Nippon Music Foundation)을 통해 1710년 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후원 받아 사용했었고, 현재 수영아트트레이드에서 후원 받은 Joseph Guarneri (1741, Del Gesu)를 사용하고 있다.

RICHARD YONGJAE O'NEILL <DUO>

ARTISTS

CREZIA
MUSIC & ARTISTS

CREZIA
STARDUST
SERIES

신지아

달과 태양을 동시에 품다

2018년 4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아키라 에구치, 피아노
신지아, 바이올린

TOUR SCHEDULE
4/27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Sangwook Lee

TICKET R 70,000 / S 50,000 / A 30,000 클럽발코니 1577-5266 인터파크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후원 KOREAN AIR

ARTISTS



문태국 Taeguk Mun

첼리스트 문태국은 1994년에 태어나 만 4세에 첼로를 시작하였고 2007년에 도미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양영림을, 줄리어드 예비학교에서는 클라라 김을 사사하였다.

제15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 최연소대상, 독일 올덴부르크 청소년국제콩쿠르 1등, 2011년 제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콩쿠르 1등, 2014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 1등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수많은 콩쿠르에서 수상하였다.

2004년 금호영재독주회와 2006년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독주회를 시작으로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가졌다. 또한 수원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뮐루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으며 2014년 부산국제음악제에 라이징 스타로 초청받아 연주를 하였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독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2015교향악축제에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으며 헝가리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다. 2016년 서울스프링실내악페스티벌,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수원시향 협연)과 헝가리<안익태 110주년 기념음악회>에 초청되어 연주를 했고 2017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어, 연간 총 5회의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앙상블 디토의 멤버로 활약 중이다. 또한 젊은 첼리스트에게 수여하는 제 1회 야노스 스타커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미국을 기반으로 한 연주기회와 장학금을 받았다.

(재)성정문화재단과 황진장학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으며 “SK케미칼 G.rium Artist”로 활동하고 있는 문태국은 줄리어드 예비학교에서 전액장학생으로 공부를 마친 후 보스톤의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전액장학생으로 세계적인 선생이자 첼리스트인 로렌스 레서를 사사했다.

문태국은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밀란 1697년산 지오반니 그란치노 (Giovanni Grancino, 1697, Milan) 를 사용하고 있다.



이수민 Soomin Lee

따뜻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솔리스트이자 실내악 연주자인 이수민은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통영 국제 음악제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음악제에 초청되어 연주활동을 하며 또한 후학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예원학교 졸업 후 이미 서울예고 재학 당시 동아일보 콩쿠르 비올라 최연소 우승을 비롯하여,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비올라 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마친 후 졸업하던 해 독일정부 학술교류처 DAAD의 장학생으로 발탁되어 도독하였다. 쾰른 국립음대에서 Rainer Moog을 사사하며 디플롬 과정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스위스 Verbier Music Festival, 영국 Prussia Cove Music Festival등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초청되어왔다.

한편 현대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International Ensemble Modern Academy에 발탁되었고, 그 후 세계적인 현대음악단체인 독일 Ensemble Modern의 객원 비올리스트로 활동해왔으며 귀국 후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많은 현대작품들을 한국 초연해 오고 있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 Martin Matalon의 음반이 프랑스 Hortus 레이블로 발매되어 현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다수의 매체로부터 수상을 한 바 있다. 세계적인 명성의 재물 바이올리니스트 강혜선과 듀오 콘서트를 가진 바 있으며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전자음향 연구소인 프랑스의 IRCAM을 비롯한 프랑스 문화부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2010년부터 Duisburger Philharmoniker/Deutsche Oper am Rhein의 제 1 비올라 수석을 역임하였고, 솔리스트와 실내악 연주자로도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며 Salzburg Music Festival, Paris Salle Pleyel, Berlin Konzerthaus, Frankfurt Alte Oper, Roma Santa Cecilia 등지에서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며 특히 2013년 창단된 현악 사중주 콰르텟 K (크네히트)의 멤버로 활동중이고 2014년 소니 클래식 레이블로 하이든의 음반, 2015년 슈베르트/멘델스존 음반이 발매되었다.

현재 인제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예고, 예원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화음 챔버오케스트라,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sia Philharmonic Orchestra의 비올라 수석으로 참여했다.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DITTO Chamber Orchestra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2008년 조직되어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라 불리는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단체이자 815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젊은 지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석지휘자를 역임 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20~30대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창단 후 정민, 아드리엘 김, 장한나(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 및 예술감독), 와드 스테어(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혼나 테츠지(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 상임 및 음악감독), 최수열(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태형,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신현수), 조진주, 한빈(아마데우스 레오폴트), 김다미,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등과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한 바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디토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로서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서초문화재단 상주단체로 선정, 보다 젊은 에너지를 선사할 것이다.

이석중, 악장
Seok-Jung Lee, Concertmaster

바이올리니스트 이석중은 줄리아드 음악원 예비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시작,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에 수석 입학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전문사(최고연주자과정)를 졸업하였으며 도미하여 전액장학금으로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석사과정(M.M)과 연주자과정(A.D)을 졸업했다.

이석중은 KNUA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하였으며 미국에서 알바노 발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악장 및 뉴욕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악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제주도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등에서 객원악장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디토 오케스트라 악장, 아베그 스트링 콰르텟 리더로 활동 및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RICHARD YONGJAE O'NEILL <DUO>

ARTISTS

CREEDIA

ditto
 Fest

Be the
 original
 2018

eSangwook Lee

<황금 듀오, 그 세 번째 무대>
용재 오닐 & 임동혁
 2018.6.7 (목)
 롯데콘서트홀

7

<워너비 듀오>
문태국 & 한지호
 2018.6.9 (토)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9

<클라 부는 사나이>
김한
 2018.6.10 (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10

<디어 마에스트로>
마이스키 & 디토
 2018.6.12 (화)
 롯데콘서트홀

12

<다이나믹 라운드>
양상블 디토 Ep.10+1
 2018.6.23 (토)
 롯데콘서트홀

23

후원 KOREAN AIR

주최 CREEDIA
 MUSIC&ARTISTS

클럽발코니 유료회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공연장 매너 이야기

공연장에는 30분 앞찍 도착해서 여유를 즐겨주세요.



악장 사이 행수는 곡의 흐름을 방해해요.



옆자리를 발로 차지 마세요.

휴대폰은 잠시 꺼 두세요 좋습니다.



공연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안돼요.



크레디아 기획공연 관람한 전 유료회원 모바일 카드를 보여주세요! 프로그램북을 증정 합니다.

(간, 클럽발코니에서 예매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15만 공연 애호가들의 선택

JOIN CLUBBALCONY

예매고수의 노하우!

-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 문화애호가 필수품, Club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 회원카드 지참시 기획공연 크레디아 프로그램북 증정
-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 1년 3만원, 5년 12만원, 10년 20만원! 만료 후 재가입시 할인 혜택

www.clubbalcony.com | 1577-5266

새로운 비행의 역사가 제2여객터미널에서 시작됩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행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해진 대한항공의 특별한 서비스를 새로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경험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